

문화
특집

자본 따라가는 일일 잡지

우리 사회에 보편화돼 있는 '3S (SPORTS, SEX, SCREEN) 문화'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일 이 아니다. 우리 언론이 '3S 문화'의 침범노릇을 하고 있다는 우려도 어제, 오늘일 이 아니다.

특히 스포츠신문의 '탈선'에 대한 우려도 어제, 오늘일 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들은 최근 스포츠 조건의 창간으로 더 욱 가속화됐다. 스포츠신문의 이전 투구시 상흔을 보며 분노가 바뀌 고 있다. 해도 너무하기 때문이다.

이유추구를 위해 언론의 윤리 와 공익성마저도 내뽐내지는 스포츠신문들의 행태를 보며 우 리는 우리 언론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가독이나 선정성이 문 제되는 우리 언론계 종로에서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지극 히 무책임한 상업논리에서 출발 한 스포츠 신문들.

89년 일간스포츠가 창간될때만 해도 그 취지는 스포츠전문지의 지향이었다. 이 취지는 89년6월 스포츠서울의 창간으로 금이 갔 으며 지난 3월21일 스포츠조선이 창간되면서 본격적인 오락·연예 지로의 성격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신문의 한 구석을 장식하며 양념정도로 머물던 연 예, 오락분야 이제 2면으로 늘 어난 지면의 반을 차지하게 됐 다.

12면에 걸친 스포츠조선과 12 면에 걸친 연예, 오락소식으로 가득찬 스포츠신문들이 비판과 우려속에도 날개돋힌듯 팔리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 람들은 스포츠신문의 내용이 심 각하고 복잡한 것을 피하고 싶 어하는 현대인들 에게 쉽게 파 고 드는 요소를 다 갖췄고 있기 때 문이라고 분석한 다. 또 현대인들 의 욕구불만과



지만 이러한 보도행태는 억압과 단죄의 사회구조에서 억눌린 이 일상화된 소시민들에게 폭발하는 욕구를 파행적으로 대리충족시켜 준다는 점에 있어 부어할 가치는 없 다고 보여진다.

스포츠경기의 긴박감을 생동적 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매체특성 이라고 넘그르게 봐넘겨도 거슬 리는 것은 또 있다. 선수들에 대 한 내용없는 과잉관심이다.

특히 그것이 사생활이나 연봉 과 관계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는 데에 불쾌감을 가중된다. 이사이 각력들은 대중이런 것 이다. '선동원 장가간다' '최종 원 물고있다' '이정훈 허벅지라 기 이상하다' '한희민 나 홀로 여행' 등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 닌 사생활이 컬러주제를 달고 현

다. 스포츠신문들의 무한경쟁은 판매부수를 높이기 위해 스포츠 선수들까지 황색화면 시각으로 다루기도 한다. 사생활이나 스캔 들, 뒷얘기와 옛날얘기가 구구절 절 등장한다.

연예, 오락면도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낯뜨겁다. 여자의 나체를 그리던 성인만화가 한 신문에 두 개 씩 연재돼 황색저널리즘의 극치 를 보여준다. 독자들에게 도움을 준다고도 늘어날 레저난도 있는 사람들의 얘기뿐이다. 보통시민 들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골프와 해외여행, 호텔 고급요리 안내, 자동차로가는 여행명소 소개일 세이다. 대다수 독자들은 자신의 취지속에 이런 기사를 읽으며 꿈꾸는 대리충족감을 느낄 뿐이 다.

를 인터뷰하며 '수없이 거친 여 배우 몸매조작 기억났다'는 내용 에서부터 비윤리적인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공공연히 일방화된 현 상으로 묘사된다.

'호랑이 발톱세웠다' 7회전 마구 두들겨 함락' 등 제목만으로 스포츠 경기가 전쟁이 된 듯한 느낌

만화대사를 한번 인용해 보자. '얼른 밥상(?)으로 가서 누워', '여자를 놓고' 일말의 양 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썩 한 중탕', '남이쓰러 붙었다', '소 파위에 넘어뜨린 뒤 불문곡직하

파행적 흐름

3과전양상으로 전개되는 3대 스포츠신문의 판매경쟁은 이러한 황색경쟁으로만 치달는 것이 아 니다. 독자확장을 위해 승용차가 걸린 무리한 퀴즈경쟁으로 번지 는가 하면 스포츠지 독자에게 본 지를 간지로 써비스하는 역전현 상까지 초래하고 있다.

스포츠신문의 폐해는 여러가지 로 나타난다. 가장 큰 폐해는 대중의 정치 의식을 마비시킨다는 점이다. 내 용없는 스포츠영웅, 연예영웅을 양산하는 스포츠지에서 우리는 언론의 공익성을 찾을 수 없다. 구조적으로 굴절되고 뒤물린 우 리 사회가 대중으로 하여금 복잡 하고 심각한것을 싫어하게 하는 사회심리요건이 된다고 해서 이 에 교묘히 연합하거나 부추기는 상흔은 언론기업으로서 용서될 수 없는 반사회성이다. 대중의

정치에 대한 염증에 연합해 우리 사회의 본질적 측면까지 왜곡하 거나 미화하는 보도행태는 소극 적인 반사회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반사회적 행태에 속한다.

또다른 폐해는 반사회적 비윤 리성이 초래되는 대중문화의 도덕 적 타락이다. 인 구의 절반을 성 적 초기기의 대상 으로 사냥감화하 고 맛대로 먹어' 로 삼는 보도관 행은 우리 사회

건전한 윤리와 가치개념을 공공 연히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또 일부 부유층의 일을 주된 소재로 삼아 대다수 독자의 계급 적 억압심리를 교묘한 대리충족 욕구로 무마하고 대중을 꿈꾸게 하는 행태도 반인륜적 행위로 비 난받아 마땅하다.

언론은 일반이 일반에게 강요 하거나 행포를 부리기 위해쓰는 무기 가 아니다. 자본의 논리에 앞서 사회적 책임성과 공익성이 보장되지 않을때 언론은 폭력 이 된다.

특히 대중매체는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도구일뿐 아니라 그 자 체가 대중문화의 내용이다. 스포 츠지의 황색 선정성이 건장한 우 리사회와 문화형성에 얼마나 독 버섯과 같은지를 명심해야 할것 이다.

양정철 (언론보 기자)

동서진영의 예술사회학적 성과

작은 지면에다 예술과 사 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담아내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따 라서 이 글에서 우리는 예 술사회학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비마르크스주의적 입 장과 마르크스주의적 입 장을 아주 간략하게 비교해 보 는 정도로 만족하고자 한 다.

최근에 이르러 이와 관련 된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 이고, 그 성과들중 괄목할 만한 것들이 이미 국내에도 논저나 번역을 통 해 소개된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술사회학은 학문분야에서 아직 '신데렐라'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예술연구들이 예술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들의 수용에서 상당한 주저를 나 타내고 있는 반면, 공산주의 국가들에서의 예술 연구는 심지어 역사적인 예술연구에서도 사회 학적인 경향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또한 공산 주의 진영에서는 그 분야에서 이루어진 작품의 가치와 의 거리가 먼 무비판적인 신화로 민중예 술(folk art)을 치장하는 치유불가능한 경향이 존 재한다 할지라도, '저급한' 예술형식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산주 의 국가들에서도 서방국가들에서의 마찬가지로 지나간 시대들의 예술에 대한 경향적인 연구들 이 부족하며, 이는 예술과 현대의 대중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김 문 환
(서울대 교수·미학)

을 선택할 여지를 더욱 많이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술적인 예술들과 생산양식 들의 발전과 더불어 그리고 공산양식들에서 증진되는 획 일성과 더불어 순수예술들이 지니왔던 예사적인, 그리고 재현적인 기능들이 이제 상 당히 사라졌다고 보아도 좋 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술의 생산과 향수는 점차 지적인 추구로 바뀌었고, 그것이 더 이상 이른바 사실주의의 상 태에 얽히지 않게 될 것 같지 는 않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성과들은 서방국가들 의 예술사회학자들에게 마르크스주의적 관념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서 방국가들에서도 여기시간이 개인적인 예술추 구를 위해 좀더 광범하게 사용되고, 예술이 참 조적으로 계획된 여가의 틀 속에서 강력하게 고취되고 있었던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나마 교육프로그램들의 지적인 독재 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람들 로 하여금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대중을 그들의 직장 밖에서조차 하나의 인간으로서 느끼는(정 중된 소의 속으로 몰아넣는 보다 명칭한 여가 시간 활동형식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강제 한다. 예컨대 불쇼야발레는, 다른 측면에서도 가능했지만,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참여가 아직은 새로 운 예술적 개화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것은

◇ '미학' 입문을 위한 시리즈(3)

현 시대의 프리즘, 예술

현실인식과 세계개혁의 원동력

공산주의국가들의 예술사회학자들이 줄곧 중 시해는 분야는 주로 다음의 두가지였다. 그것 은 곧 '부르조아 추상주의와 형식주의' 및 그 미학에 대한 비판과 사회주의 하에서의 예술생 산을 위한 기회들의 창출이다. 오로지 오프스 키나 비탈로스트로 같은 폴란드 화가들만이 이데올로기와의 연관을 필수로 회피하면서 서 방의 예술사회학에도 적합한 연구를 수행했 다고 평가된다.

현재의 예술생산과 소비에 대한 많은 비판에 도 불구하고, 서방의 예술사회학자들은 그들 자신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현대예술에 대 한 유행적인 판결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그러 나 전반적으로 볼 때 특히 새로운 시각적인 소 통수단이 예술을 좀더 높은 정도의 추상으로 내몬다고 보여지는데, 마르크스주의적인 반영 이론은 오늘날, 이전의 반영가능들중 일부를 넘겨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매체들에 관한 한, 완전히 반동적이라는 평가를 면기 어렵다. 다 원주의적인 양식적 경향들의 존재는 다원주의 적 사회가 존속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 명하고, 어떤 집단이나 단체도 좋은 취미와 예 술의 사회적 효용들에 대한 정의를 온전하게 통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그로인해 상업주 의로부터의 위협이 더욱 강화된 것은 우려할만 한 사실이지만 이전의 주종관계가 사라지고 화 가-고객 관계가 진전되면서 예술가에게는 직접 적인 사회적 통제로부터 벗어날 자유가 좀더 많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는 현재를 풍미하 는 이상에 순응하는 대신 대안적인 표현형식들

을 줄곧 사색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노선을 걷는 작품들 에 대한 전적인 거부는 서방예술비평과 관계된 모든 지적 정치적 쟁점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나마, 내용의 우 선성에 복속하는 사회주의적 예술주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하는 것만이 아닌, 무의식적 인 방어기제에 기초한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방어기제가 기동권을 영속시키려는 사회계층의 의도와 결합되어 있다면, 그 허위적식은 비판 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진영 안에서 차츰 그동안 기피되었던 '추상주의'가 실현되 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이른바 대중문화현상의 방지를 옹호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허버트 마 트주제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의 비판이론이 (예술생산 분야에서의 긍정적 성과들과는 별도 로) 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예술소비와 취미조 작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국가들에서의 예술산 업을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고 인간적인 민주적 사 회주의를 구현할 신사고를 모색하는 소비에트 진영내에서의 변화가 서방권에 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시점에서 우리는 예술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초월케 하 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좀더 근원적으로 세 계를 개혁해나가도록 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의미있는 연구들이 산출될 것을 기대해본다.

부유층 중심지면은 없는자의 피해의식 무마의도 건전한 대중문화 선도체로서의 자각 필요

관한 지면의 제일 위로 올라가 있다. 그뿐인가. 누구의 연봉이 얼마에 타겟됐다가 누가 누구 에 열애중이거나 누가 누구의 품이 어디가 좀 이상하다는 따위로서 그야말로 별천지 얘기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겨울이면

오락성 기사도 다소 허황된것 들이다. 풍수지리는 그렇다쳐도 꿈풀이와 운세예상은 남독이 가 지 않는다. 신문의 구색을 갖추 기 위해 돈 뜻한 사회면은 사회 현상의 정확한 보도나 분석과는 거리가 멀다. 복잡다난한 사회현 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도만 하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단순화 시 키고 축소화 시키니 문제가 된 다. 진통하는 대학을 놓고 면화 분위기가 한창이라는 식이거나 정치문제의 가십체리 관행은 스포츠지라고 해도 그 파행성이 짙 다.

스포츠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폐해는 특히 여성의 성적 비 하이다. 미끈하고 건장한 하체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해 줄 수 있 다. 그러나 성적호기심을 자극하 고 성적욕구를 대리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소모품 심지어는 사 랑대상으로까지 묘사하는 만화나 기사는 도가 지나치다. 남자배우

내용없는 스포츠영웅, 연예 영웅 양산하는 스포츠지에서 언론의 책 임성은 더욱 회미해져

'고공폭격기 김용세, 용단폭격' '호랑이 발톱세웠다. '김정수 전천후 활약' '이회택감독 특명! 호 벨기에를 잡아라' 7회전 마 구 두들겨 함락' 등 제목만 읽다보 면 스포츠 경기가 전쟁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폭력이 일반화된 세태 의 반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

극에 달한다. 프로야구나 축구 등 경기가 없어 기사가 모자르다 보니 어느 팀이 열음속에서 지옥 훈련을 한다거나 미스코리아 모 양이 중궁계 모제벌과 약혼했다 는 기사가 전면을 장식하기 일쑤 다. 말도 안되는 기사가 자신들 의 표현대로 '행복'이 되는 것이

절제된 멋이 바로 남성패션

전문 비즈니스신사복 마스타피스



COLOR

실용성있는 소재와 남성미 넘치는 스트라이프, 엘레강스한 색조 무늬를 주조로 한 200여 색상은 어떤 연령대라도 만족시킬 것입니다.

PRICE

신소재의 개발, 유통의 합리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거의 10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오늘을 사는 활동적인 비즈니스맨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STYLE

오래입어도 지루하지 않은 옷— 전통적인 보수성과 현대적 감각을 적절히 조화시켜 비즈니스맨의 사회적 역할에 적합하게 설계된 전문 비즈니스 신사복입니다.



DRESS FOR BUSINESS MAN

Masterpiece